



퍼펙트퀸 송가은 키스는 달콤했다

무결점 샷으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시즌 첫승

KLPGA 대보 하우스디 오픈

1R 코스레코드 기세 끝까지 이어 2번 홀·14번 홀서 9m 버디 성공 사흘간 보기 1개 10개월만에 정상 "2승 이상·모든 대회 톱10 목표"



첫날 코스레코드 신기록(10언더파)을 몰아친 기세가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사흘 내내 리더보드 최상단을 지킨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그야말로 흡집을 데 없는 '완벽한 챔피언'이었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신인왕을 차지했던 송가은(22)이 2022시즌 첫 승 및 통산 2승을 수확했다. 10일 경기 파주시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밸리·서원코스(파72)에서 열린 '대보 하우스디 오픈'(총상금 10억 원)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4개를 적어내 4타를 줄였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198타로 오지현(26·15언더파)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상금 1억 8000만 원을 품에 안았다. 지난해 9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당시 세계랭킹 7위 이민지(호주)를 연장 접전 끝에 따돌리며 첫 우승을 따낸 데 이어 10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추가했다.

1라운드에서 버디만 10개를 잡아 코스레코드 신기록을 작성했던 송가은은 이를 날 4타를 더 줄여 2위 오지현에 2타 앞선 채 3라운드를 맞았다.

2번(파3) 홀에서 9m 먼 거리 퍼트를 떨어뜨려 첫 버디를 잡았고, 6번(파4) 홀에선 그린 옆 22m 거리의 깊은 러프에서 친 세 번째 샷을 홀컵 3m에 세운 뒤 쉽지 않은 라인에

대보 하우스디 오픈 최종 순위 (파72)

이름	스코어	리운드별 타수
우승 송가은	18언더파 198타	62-68-68
2위 오지현	15언더파 201타	67-65-69
공동3위 유해란	14언더파 202타	69-69-64
공동3위 광보미		66-68-68
공동5위 박지영	13언더파 203타	68-67-68
공동5위 임희정		67-67-69
공동5위 성유진		66-67-70

※ 박민지 11언더파(68-67-70) 공동 10위

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파 세이브에 성공하는 등 이렇다 할 위기 상황조차 없었다.

8번(파3)~9번(파4)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전반에 버디만 3개를 적어낸 송가은은 파 행진을 이어가다 14번(파4) 홀에서 9m 먼 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오지현, 이민지 경기를 마친 유해란(21)에게 다시 4타 차로 달아나며 사실상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사흘간 54홀을 돌며 기록한 보기는 단 1개뿐일 정도로 안정적 경기 운영이 빛났다. 개막전부터 12개 대회에 연속 출전해 6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거둔 4위가 시즌 최고 성적이었지만 지난주 열린 맥콜·모나파크 오픈을 휴식 차 건너 뛴 뒤 2주 만에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시즌 마수 곁이 우승이란 달콤한 열매를 따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다. (3타 차 여유가 있었던) 마지막 18번 홀에 와서야 우승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송가은은 "올해 목표가 2승 이상 거두는 것이었다. 1승을 따냈으니 앞으로 2승을 목표로 하되 매 대회 10위권 이내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1982년 고 구희희 이후 40년 만에 '한 시즌 3회 타이틀 방어'라는 대기록에 도전했던 박민지(24)는 3라운드에서 2타를 줄이는데 그쳐 함께 11언더파 공동 10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장수정(대구시청)이 10일(한국시간) 스웨덴 베스타드에서 열린 노디아오픈 단식 결승에서 리베카 마사르바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선수로는 40년만의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우승이다. 사진출처 WTA 투어 홈페이지

40년만에 WTA 한국인 챔프 탄생 프로 첫 우승 장수정 역사를 썼다

노디아오픈 단식 결승서 마사르바에 2-1 역전 155위 장수정, 세계랭킹 120위 이내 진입 예상



생애 첫 프로 우승을 달성했다. 그 순간이 한국선수로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에서 40년 만에 우승한 것이라 기쁨과 의미가 더 컸다.

장수정(27·대구시청)은 10일(한국시간) 스웨덴 베스타드에서 열린 노디아오픈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리베카 마사르바(스페인·146위)에 세트스코어 2-1(3-6 6-3 6-1) 역전승을 거뒀다.

2시간16분 동안 펼쳐진 혈투의 끝에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새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수정의 이번 우승은 1982년 이덕희가 WTA 투어 포트마이애스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한국선수로서 40년만의 WTA 투어 대회 우승이다. 그 사이 조윤정이 2002, 2003, 2006년 WTA 투어 대회 단식 결승에 3차례나 올라갔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친 바 있다.

장수정 개인으로서도 2017년 하와이오픈 준우승을 뛰어넘은 성과라 기쁨은 두 배였다. 11월 발표될 예정인 세계랭킹에서도 기존 최고 랭킹인 120위를 가뿐히 뛰어넘을 전망이다.

세계랭킹 155위 장수정은 마사르바를 상대로 객관적 전력에서 열세였다. 다만 이날 경기 전까지 마사르바와 상대전적은 1승1패로 팽팽했다.

장수정은 클라라 부렐(프랑스·95위)과 32강전을 시작으로 이리나 크로마체바(러시아·187위)~판나 우드발디(헝가리·100위)~빅토리아 토모바(불가리아·112위·이상 2-0 승)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 올라 기대감이 일었다.

장수정은 결승 1세트에서 마사르바의 강서브에 밀려 맥없이 패했다. 지난해 3월 튀르키예(터키) 안탈리아 W 15 토너먼트 1라운드 당시 1-2(6-7 7-5 3-6)로 패한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2세트부터 특유의 빠른 풋워크와 포핸드 리시브가 살아난 덕에 기사화생했다. 마지막 3세트에선 일찌감치 3-0으로 치고 나갔고, 마사르바의 반격을 포핸드 리시브로 저지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장수정은 WTA와 인터뷰에서 "개인 첫 WTA 우승을 일궈내 정말 기쁘다. 바람이 많이 불어 초반에 힘들었지만 페이스를 금방 찾은 게 중요했다. 향후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재민 기자 jmar220@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100% 국산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한 속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